

대행 스님

모든 것을 안에서 찾는 데에 역점을 두십시오

이렇게 일주일 만에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설법을 들으실 때에 설법 아닌 게 없지만 해당치 않은 말이라고 해서 허술히 듣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귀머거리가 천둥 번개가 치는데 딴 사람이 천둥 번개 쳤다니깐 귀머거리는 천둥 번개가 어딨느냐고 고집을 부리더랍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누구나가 다 이 오묘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해가 가게 하려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질을 방편으로 써서 얘기할 수밖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부합을 시켜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자에는 쓰고 배우면서 공부했지마는 지금은 쓰고 배우고 읽고 그래서만 되는 거는 아닙니다. 한생각을 하고 그것도 더불어 같이 한생각을 해서 우리가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마음 한생각에서 탐구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간 자체가 고정됨이 하나도 없기에 이 사대와 세상, 오온이 다 공한 줄 알게 된다면…' 하는 겁니다.

그거를 알게 된다면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이 뜻을 이미 몇천 년 전에 말씀하셨다는 게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참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그냥 '이건 부처님 앞에 정성 들이는 소리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탐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향' 하면은 우리 스님네들만 계를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스님네들과 더불어 같이 있는 거지 스님네들 따로 있고 여러분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향' 한다면 질서를 문란치 않게 하는 마음과 더불어 모든 것을 정도에 넘치지 않게 하는 것, 일체 만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생활면에서 있어서 모든 것을 한 생각 뉘우치면서 남을 원망하지 않아야죠. 가정에서나 내 몸으로나 밖으로나 모든 것이 계율에 어긋난 살림살이라면 그 살림살이는 벌써 어느 한구석이 터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향' 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가지를 말씀을 하실 때에 끄트머리에 꼭 다 향, 향, 향, 향, 향 했습니다. 왜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한지 아십니까? 향이라는 것이 어떠한 데에 쓰는 것이 향이냐? 우리가 향을 피우는 것만이 향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아름다운 향을 피우는 것, 종합해서 일체 만법을 행하는 데에, 마음쓰는 데에, 뜻을 행하는 데에, 뜻과 행과 말이 한데 떨어지지 않는 행의 계율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향" 한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정향"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사대와 오온이 전부 공한 줄을 알았다면은 일체 만법의 마음을 내며 일체 만법의 행을 하며 일체 만법의 눈을 뜨고 빛을 보며 또 일체 만법의 염파를 들으며, 또는 우리가 몸을 움죽거리면서 행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내며, 뜻을 가지는 모두를 겸해서 '주인공' 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면 그 주인공 자체, 그 자신의 실상, 근본을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해서 그것을 믿고 거기에다 일임해서 맡기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물러서지 않는 것을 말해서 '정향' 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나로부터 이 세상이 생긴 거지 나 없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바탕인 나의 주인공의 그 뜻을 가지고서 일체 만법의 마음을 내면서 활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모든 것이 공했다는 걸 알고, 거기다가 놓고 일임하고 믿고, 거기서 전부를 다 지켜볼 수 있는 오관을 통한 감각, 이것을 지켜볼 수 있다면 우리 모두 공부하는 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또 "혜향" 했습니다. '혜향' 이라는 것은 청각이나 시각이나 또는 미각이나 촉각, 지각을 한데 합쳐서 마음 근본에 모든 것을 놓고, 돌아가는 그 자체를 가만히 안팎으로 유의 법이나 무의 법이나 상황을 잘 판단을 해서 지혜롭고 능동적이게 마음을 쓰게 뒷받침을, 정향의 뒷받침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마음에 거기다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혜향" 한 것입니다.

'해탈향' 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자에부터 수없는 억겁을 거쳐 오면서 진화되고 창조되고 또 창조되고 진화돼서 여기까지 올라온 인간이지마는 아직 50%가 모자라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 하는 사람으로서는 모든 것을 주인공에 일임하고 맡기고 믿고 지켜보면서, 모든 것은 이 허수아비가 하는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을 주인공에 놔라 이겁니다. 놓게 되면 나중에 억겁에 걸친 업의 과보라든가 억겁에 대한 죄업이 얼기설기 다 묶어진 것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 '해탈향' 입니다. 그러니깐 억겁의 업보가 풀리는 그 자체가 바로 해탈향의 뜻입니다.

그러면 '해탈지견향' 이라는 것은 뭐냐. 항상 모두를 놓고 항상 밝아서, 유의 법 무의 법이 같이 밝아서, 내 생명의 근원과 마음 내는 것이 항상 밝으니까, 이 육신도 밝게 행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다 밝아서 통달하고 보니 무엇인들 거기에 걸릴 바가 있겠습니까? 걸리지 않고 돌아가는 것을 '해탈지견향' 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요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무' 자 화두를 가졌다, 또 '이 뭣고' 화두를 가졌다, 어떤 화두를 가졌든지 간에 그 화두는 바로 이름인 것입니다. 또 내가 주인공이라고 부르라고 한 것도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낸 것은 내 마음 안으로 모든 것을 놓고 믿으라는 것이죠. 내 자아를 발견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니깐요, 이 바탕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이 세상에 나온 것을 화두라고 생각하고 근본에 바로 들이대라. 이것이 근본의 지표가 될 수 있고 바탕이 될 수 있는, 이게 제사 지낼 때 위패 놓는 거나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부처님을 조성해 놨을 때에는 '바로 저 부처님의 몸이 우리의 몸이요, 저 부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니….'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모셔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화두 든 것은, 우리의 이 몸이 벌써 화두로 정해졌고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이미 화두로 정해졌는데 바깥에 또 화두를 쥐고 있으니 이거 용납이 되겠습니까?

이거를 비유해서 한번 들어 봅시다. 모든 기계가 물건을 생산하는 데에 쭉쭉쭉쭉 빠집니다. 그런데 기계 한 귀퉁이가 고장이 나 가지고선 만약에 막혔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뒤따라 나오는 것이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파산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 생활도 바로 놓고 그냥 돌아간다면 그렇게 밀리지 않을 것을, 밀려서 부닥치고 부닥치면서 사람이 고를 겪고 그러지 않을 것을 자꾸 만들어서 자업자득으로 생활을 해 나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를 한번 비유해서 얘기해 보십시다. 이 우주 전체가 금강자석이라고 한다면 금강자석에 의해서 그 빠른 힘이 있어서 물이 이 지구 바깥으로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지구는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석과 같은 힘은 누가 가져왔느냐? 바로 우리들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별성입니다. 바로 우리의 능동적이고 활용적이고 움죽거릴 수 있는 그 무한의 능력을 가진 생명선입니다. 그 생명선이 떠다니다 떠다니다가 한데 모아진 것이 바로 지구 덩어리라고 본다면 그 능력에 의해서 금강자석이라고 이름을 붙여 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자석에 붙어서 있는 게 아니라, 자석에 의해서 이렇게 마음을 내 가지고 자석에 의해서 궤도를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떠한 물건이든지 내 앞에 닥쳤을 때는 체가 없는 마음이 마음을 동작을 시키는데 이것을 다 놓고 돌아간다면 자석에서 붙을 건 붙고 떨어질 건 떨어지고 해서 분해가 다 되는 것

☞ 22면으로 계속

